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세미나’ 개최

연구원은 지난달 26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민자사업의 현황과 시장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적합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연구원의 박용석 연구위원과 황우곤 흥국증권

부사장은 각각 ‘최근 민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 과제’, ‘민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방안 - 중위험·중수익 모형’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규방 코람코자산신탁 고문의 사회로 고상진 공공건설산업연구소장, 고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손진 우리은행 SOC팀장, 안상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양동완 GS건설 부장, 홍성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제도팀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달 11일에도 2014년에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건설 리스크와 관련 현안의 대책 마련을 위해 원내 연구진과 참석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법을 토론했던 ‘2014년 해외건설 잠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하반기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연구원은 이달 17일 역삼동 소재 중식당 루안에서 연구자문위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연구원은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건설업계 및 학·관계 권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초청하여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익년도 연구 과제의 발굴 방향 및 최근 건설업계 현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2014년 연구과제 제안 실시

연구원은 이달 4일까지 2014년 연구원에서 추진할 연구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연구과제 제안에 대한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의 홈페이지(www.cerik.re.kr)에 안내되어 있으며, 연구 과제로 채택된 외부 제안자들에게는 연구보고서 등 연구원의 주요 발간물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